

조기경험이 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광현 · 이중훈 · 이종범 · 박병탁 · 정성덕

서 론

인간은 출생이후 노인이 될때까지 수 많은 경험을 겪는다. 경험은 한개체의 사고속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시기의 정서적 경험은 무의식속에 남아서 사춘기이후의 성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1,2)}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정신적상처는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야기시켜 준다.^{3~5)}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간은 자기-가치 정립을 시도하여 자아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개인 신체적인 주체성과 더불어 성적 및 직능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독립적인 한 개인의 가치체계를 갖추게 된다.⁶⁾ 조기기억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계가 깊듯이 사춘기때 갖춘 가치체계는 성인이후의 인격의 중심인자가 되어 노년기에 접어들때까지 각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즉 사춘기 이전에 겪은 정신적 상처는 역시 장기 기억으로 고착되어 반영구적으로 한 개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춘기 이전의 부정적인 조기경험은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되어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기전의 생활사중에 받은 정신적 상처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7,8)} 이에 비하여 사춘기 이전에 경험한 정신적으로 상처

가 된 경험을 노인들의 조기감정경험으로 간주 하였을 때 이런 상처가 된 경험과 노인의 정신 건강의 상호관계를 추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이에 저자들은 노인의 정신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이들 노인들의 조기경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처가 된 경험과 노인의 정신건강의 상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1988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 300명이었다. 조사방법은 불안-우울 통합척도(Combined anxiety-depression scale 추후 CADS로 약함)와 조기경험척도(Preadolescence traumatic experience scale 추후 PTES로 약함)를 사용하였다. 불안우울 통합척도는 Zung이 고안한 자가평가 불안척도와 자가 평가 우울척도^{9,10)}, Hamilton이 고안한 불안척도와 우울척도^{11,12)} 그리고 Leed가 고안한 불안-우울척도를 검토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25항 목록을 선별하였다. CADS와 Zung, Hamilton 및 Leed 척도간의 상관관계와 자체의 신뢰도(Reliability)검증은 유의한 범위임을 확인하였다.¹³⁾

CADS의 내용은 진단통계편람(DSM-III-R) (APA, 1987)¹⁴⁾의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였다.

* 본 논문은 영남대학교-미쉬간대학 공동주최 제4차 노화 노인복지 국제학술 symposium에서 구연된 내용임.

사춘기전 정신적으로 상처가 된 감정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춘기전 감정경험척도를 고안하여 이를 조기경험척도로 정하였다.

조기경험척도는 저자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어린시절의 경험을

검토한 후 25개의 문항을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McCubbin과 그의 동료들¹⁵⁾이 고안한 생활사와 변화에 대한 가족검사를 참조하였다.

PTES의 내용은 1)가족관계 불화 (Negative family relation), 2)부모의 부정적 태도(Rejec-

Table 1. Combined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scores between below 49(comparative group) and over 50 (experimental group) mark

Items of CADS	$M \pm SD$	$M \pm SD$
	N=144	N=134
1. Anxiousness	1.73±0.73	2.40±0.73*
2. Fear	1.38±0.62	1.96±0.80*
3. Mental disintegration	1.85±0.82	2.84±0.73*
4. Body aches & pains	1.66±0.78	2.69±0.87*
5. Paresthesias	1.83±0.81	2.28±0.85*
6. Restlessness	1.38±0.64	1.71±0.78*
7. Facial flushing	1.32±0.59	1.65±0.79*
8. Faintness	1.18±0.42	1.76±0.86*
9. Dissatisfaction	1.70±0.68	2.46±0.77*
10. Depressed affect	1.61±0.62	2.49±0.68*
11. Crying spells	1.48±0.63	2.25±0.79*
12. Hoplessness	1.28±0.48	2.13±0.91*
13. Psychomotor retardation	1.88±0.77	2.66±0.88*
14. Suicidal rumination	1.28±0.50	1.99±0.81*
15. Apprehension	1.72±0.71	2.29±0.81*
16. Loss of interest	1.29±0.50	2.13±0.87*
17. Decreased libido	2.13±1.09	2.98±0.93*
18. Weight loss	1.50±0.72	2.31±1.11*
19. Indecisiveness	1.47±0.59	2.66±0.74*
20. Dizziness	1.72±0.70	2.46±0.77*
21. Palpitation	1.74±0.73	2.37±0.75*
22. Fatigue	2.11±0.81	2.83±0.86*
23. Indigestion & decreased appetite	1.75±0.80	2.43±0.91*
24. Sleep disturbance	1.67±0.80	2.46±1.01*
25. Nightmare	1.49±0.63	1.98±0.77*
Total	40.15±6.19	57.75±6.37*

* P<0.001

tive parental attitude), 3)부모의 과잉 간섭(Overinterferencial parental attitude) 4)경제적인 곤란(Economic difficulties), 5)사별(Bereavement) 등으로 각각 4문항 그리고 정신적 요소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로 평가한 점수는 경험이 없을 경우 1점, 매우 심각할 때는 4점으로 하여 총 25점에서 100점 사이의 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CADS로 평가한 노인들은 50점을 경계로 하여 2군으로 나누었으며 49점 이하를 대조군, 그리고 50점 이상을 실험군으로 삼았다.^{16,17)} 이 두 군을 대상으로 PTES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사회정신의학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양군의 비교는 t-검정을 하였다.

결과

1. 불안-우울 평가

CADS로 평가한 대조군과 실험군의 총점은 각각 40.15 ± 6.19 와 57.75 ± 6.37 로 이 결과는 유의한 의미를 보였다($p < 0.001$)(표 1 참조)

증상의 내용중 유의한 상위 항목은 양군 모두 성욕저하(Decreased libido), 정신적 혼란(Mental disintegration), 피로감(Fatigue) 및 정신운동성 지연(Psychomotor retardation) 등으로 상호 일치하였고 이상감각(Paresthesias)과 전신 통증(Body-aches & pains)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었다.

2. 조기경험 평가

PTES로 평가한 양군의 총점은 각각 34.50 ± 6.94 와 39.73 ± 9.19 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었다($p < 0.001$)(표 2 참조).

실험군에서 3)어머니와의 불화 4)가족중의 알콜중독자 6) 식생활 곤란 10)어머니와의 사별 15)부모의 무관심 16)원치않는 출생등의 항목은 매우 유의한 의미를 보였다($p < 0.001$).

그다음 문제점은 1)부모간의 불화 2)부자간의 불화 14)부모의 심한 매질 17)부모의 거절 19)죽으라는 부모의 태도 23)집안일 시키기 및 24)귀신이나 도깨비의 위협($p < 0.01$), 그리고 9)부모사별 13)엄한 부모 및 25)학비곤란 등이었다 ($p < 0.05$).

3. 정신사회적 요인과 조기경험 점수평가

PTES점수는 남여 모두 실험군이 더 높았는데 여성군이 더욱 유의하였다($p < 0.001$). 연령별 분포는 60대와 70대가 대조군 94% 및 실험군 92.5%를 차지 했으며,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80대 이상의 사례수가 18명(6.5%) 90대 이상은 한명도 없었다. 결혼상태는 실험군에서 부부동거자와 독신자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는데 독신으로 있는 노인의 점수가 높았다($p < 0.001$).

교육정도는 실험군에서 무학($p < 0.001$)이거나 국졸($p < 0.01$)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3 참조).

종교는 실험군에서 무교이거나 불교일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직업은 실험군에서 무직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형제자매수는 1,3,5,7명 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 < 0.001$). 형제순위별 성적은 실험군에서 첫번째와 두번째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표 4 참조).

성장지별 성적은 실험군에서 도시와 시골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생활정도별 성적은 실험군에서 중류와 하류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자녀와의 동거에 따른 성적은 실험군에서 동거하는 노인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부모의 직업에 따른 성적은 농업은 대조군과 실험군이 각각 113명(78.5%)과 115명(85.8%), 상업은 양군 각각 15명(10.4%)과 7명(5.2%)으로 농업과 상업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표 5 참조).

Table 2. PTES between comparative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Items of early psychosocial events	M \pm SD N=144	M \pm SD N=134
1. Disunion between husband and wife	1.67 \pm 0.79	1.96 \pm 0.73 * *
2. Trouble between father and children	1.53 \pm 0.73	1.84 \pm 0.91 * *
3. Trouble between mother and children	1.36 \pm 0.60	1.69 \pm 0.78 * * *
4. Alcoholism among family members	1.41 \pm 0.70	1.89 \pm 0.97 * * *
5. Psychosis among family members	1.11 \pm 0.41	1.13 \pm 0.37
6. Dietary life difficulty	1.54 \pm 0.76	1.99 \pm 0.94 * * *
7. Frequent change of occupation of father	1.17 \pm 0.46	1.27 \pm 0.61
8. Frequent relocation	1.31 \pm 0.46	1.35 \pm 0.69
9. Early paternal loss	1.49 \pm 0.88	1.75 \pm 1.05 *
10. Early maternal loss	1.23 \pm 0.61	1.58 \pm 1.05 * * *
11. Crying spells	1.59 \pm 0.86	1.51 \pm 0.77
12. Parent's refusal of education	1.81 \pm 0.94	1.84 \pm 0.98
13. Strict parent	1.90 \pm 0.81	2.10 \pm 0.85 *
14. Severe punishment by parent	1.22 \pm 0.49	1.46 \pm 0.73 * *
15. Parent's indifference	1.27 \pm 0.57	1.63 \pm 0.82 * * *
16. Unwanted birth	1.18 \pm 0.48	1.45 \pm 0.78 * * *
17. Threat of parent's rejection (unwanted adoption)	1.44 \pm 0.63	1.66 \pm 0.77 * *
18. Threat of parent's own death	1.49 \pm 0.78	1.60 \pm 0.85
19. Threat of my parents desiring my early death	1.18 \pm 0.50	1.41 \pm 0.85 * *
20. Sexual stimulation by parents	1.05 \pm 0.25	1.13 \pm 0.47
21. Incest	1.08 \pm 0.34	1.19 \pm 0.50
22. Parent's demand of make earn more money	1.16 \pm 0.48	1.30 \pm 0.72
23. Parent's demand of doing domestic chores	1.56 \pm 0.69	1.81 \pm 0.85 * *
24. Fear of devil or ghost	1.28 \pm 0.61	1.49 \pm 0.71 * *
25. Being hard up for school expenses	1.48 \pm 0.84	1.70 \pm 0.96 *
Total	34.50 \pm 6.94	39.73 \pm 9.19 * * *

* P<0.05

** P<0.01

*** P<0.001

Table 3. Various psychosocial factors(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PTES scores between comparative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Factors	N=144		N=134	
	No. of subjects	M \pm SD	No. of subjects	M \pm SD
	(%)			
Sex				
Male	59(41.0)	35.07 \pm 7.1	34(25.4)	39.1 \pm 10.0*
Female	85(59.0)	34.2 \pm 6.8	100(74.6)	40.0 \pm 8.9** ** *
Age				
60's	93(64.6)	35.4 \pm 7.0	76(56.7)	40.0 \pm 9.9** ** *
70's	43(29.9)	33.4 \pm 6.9	48(35.8)	39.5 \pm 7.4** ** *
80's	8(5.6)	30.5 \pm 4.2	10(7.5)	39.3 \pm 11.1*
90's	0(0.0)	0.0 \pm 0.0	0.0(0.0)	0.0 \pm 0.0
Marital status				
Couple	84(58.3)	34.6 \pm 7.2	55(41.0)	39.4 \pm 9.4** *
Single	60(41.7)	34.4 \pm 6.6	79(59.0)	40.0 \pm 9.0** ** *
Education				
Illiteracy	44(30.6)	33.5 \pm 6.8	72(53.7)	40.3 \pm 9.6** ** *
Primary school	56(38.9)	35.9 \pm 6.7	36(26.9)	40.8 \pm 8.3** *
Middle school	15(10.4)	32.4 \pm 6.4	9(6.7)	37.4 \pm 8.2
High school	15(10.4)	33.9 \pm 6.1	9(6.7)	34.3 \pm 6.8
College	12(8.3)	34.8 \pm 8.2	5(3.7)	35.8 \pm 5.6
Graduate school	2(1.4)	34.5 \pm 9.5	2(1.5)	47.0 \pm 15.0

* P<0.05

** P<0.01

*** P<0.001

Table 4.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religion, occupation, number of brother and sister, birth order) and PTES between comparative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Factors	N=144		N=134	
	No. of subjects (%)	M \pm SD	No. of subjects (%)	M \pm SD
Religion				
No	35(24.3)	35.2 \pm 7.1	38(28.4)	40.8 \pm 9.9**
Buddhism	64(44.4)	33.7 \pm 7.1	68(50.7)	39.3 \pm 8.3**
Catholic	17(11.8)	34.7 \pm 7.6	16(11.9)	39.3 \pm 10.0
Protestant	26(18.1)	33.7 \pm 5.1	12(9.0)	39.4 \pm 10.2
Others	2(1.4)	26.5 \pm 1.5	0(0.0)	0.0 \pm 0.0
Occupation				
Yes	33(22.9)	34.3 \pm 7.6	18(13.4)	37.1 \pm 6.2
No	111(77.1)	34.6 \pm 6.7	116(86.6)	40.2 \pm 9.5**
Numbers of brother and sister				
1	4(2.8)	40.0 \pm 10.0	2(1.5)	28.5 \pm 3.5*
2	9(6.3)	33.0 \pm 6.7	12(9.0)	37.8 \pm 7.8
3	27(18.8)	34.1 \pm 6.3	21(15.7)	39.1 \pm 7.5*
4	30(20.8)	34.0 \pm 7.6	17(12.7)	37.8 \pm 7.4
5	38(26.4)	34.4 \pm 6.8	34(25.4)	40.4 \pm 11.1**
6	22(15.3)	36.2 \pm 6.6	30(22.4)	40.9 \pm 8.7
7	12(8.3)	31.9 \pm 2.8	12(9.0)	38.7 \pm 6.8**
8	2(1.4)	41.0 \pm 9.0	5(3.7)	48.8 \pm 10.5
9	0(0.0)	0.0 \pm 0.0	1(0.7)	44.0 \pm 0.0
Birth order				
1st	41(28.5)	33.7 \pm 7.0	37(27.6)	39.0 \pm 10.3**
2nd	46(31.9)	33.4 \pm 6.0	38(28.4)	39.1 \pm 6.4**
3rd	28(19.4)	36.4 \pm 7.9	22(16.4)	41.9 \pm 11.9
4th	13(9.0)	35.1 \pm 6.2	20(16.4)	43.6 \pm 9.0**
5th	9(6.3)	36.3 \pm 6.6	11(8.2)	35.3 \pm 4.2
6th	4(2.8)	34.8 \pm 4.3	6(4.5)	35.7 \pm 5.0
7th	2(1.4)	30.0 \pm 3.0	0(0.0)	0.0 \pm 0.0
8th	1(0.7)	50.0 \pm 0.0	0(0.0)	0.0 \pm 0.0
9th	0(0.0)	0.0 \pm 0.0	0(0.0)	0.0 \pm 0.0

* P<0.05

** P<0.01

*** P<0.001

Table 5. Various psychosocial factors(growing place, social classes, number of children, living with son or daughter, parent's occupation) and PTES between comparative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Factors	N=144		N=134	
	No. of subjects (%)	M \pm SD	No. of subjects (%)	M \pm SD
Growing Place				
City	23(16.0)	32.1 \pm 5.7	22(16.4)	37.9 \pm 8.2 * *
Country	121(84.0)	35.0 \pm 7.0	112(83.6)	40.1 \pm 9.3 * * *
Social classes				
Upper	7(4.9)	34.3 \pm 8.2	9(6.7)	39.7 \pm 4.5
Middle	124(86.1)	34.7 \pm 7.1	101(75.4)	39.0 \pm 9.2 * * *
Lower	13(9.0)	32.5 \pm 3.6	24(17.9)	42.7 \pm 9.8 * * *
Numbers of children				
1	11(7.6)	32.8 \pm 4.2	11(8.2)	40.4 \pm 9.9*
2	14(9.7)	38.1 \pm 8.5	8(6.0)	41.4 \pm 8.6
3	18(12.5)	33.1 \pm 5.3	19(14.2)	42.7 \pm 10.2 * * *
4	54(37.5)	35.0 \pm 7.3	38(28.4)	38.8 \pm 8.0*
5	47(32.6)	33.8 \pm 6.6	58(43.3)	39.0 \pm 9.3 * * *
Living with son or daughter				
Yes	104(72.2)	34.5 \pm 7.1	99(73.9)	40.6 \pm 9.8 * * *
No	40(27.8)	34.5 \pm 6.5	35(26.1)	37.2 \pm 6.7
Parents occupation				
Farm	113(78.5)	34.9(6.8)	115(85.8)	39.9(9.3) * * *
Commence	15(10.4)	32.3(5.7)	7(5.2)	42.6(8.2) * *
Public officer	5(3.5)	31.8(7.5)	2(1.5)	36.5(5.5)
Banker	0(0.0)	0(0.0)	1(0.7)	41.0(0.0)
Company employer	2(1.4)	32.0(2.0)	1(0.7)	28.0(0.0)
Teacher	1(0.7)	30.0(0.0)	1(0.7)	35.0(0.0)
Profession	1(0.7)	26.0(0.0)	1(0.7)	32.0(0.0)
Labour	1(0.7)	34.0(0.0)	2(1.5)	45.0(8.0)
Engineer	1(0.7)	26.0(0.0)	1(0.7)	44.0(0.0)
Service	1(0.7)	36.0(0.0)	0(0.0)	0.0(0.0)
Others	4(2.8)	42.8(8.6)	3(2.2)	30.0(3.6) * *

* P<0.05

* * P<0.01

* * * P<0.001

고 츠

첫째, 노인들이 CADS로 평가한 불안과 우울 증상의 평균점은 실험군이 57.75 ± 6.37 이었다. 이는 영남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와 비교했을 때 신입생 3792명 중 10%인 50 점이상 고득점자에 해당하는 점수였다.¹⁸⁻²⁵⁾ 특히 50점이상은 불안이나 우울장애의 신경증적 상태에 해당되는 수준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15,16)}

노인들이 평가한 특징적 증상은 성욕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하며 활동하기 싫고 정신적 혼란이 오거나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나 전신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주로 신체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²⁶⁾

둘째, 노인들이 PTES로 평가한 조기경험성적은 실험군이 39.73 ± 9.19 이었다. 즉 30점 전후의 하위수준에는 대조군이 많고 40점 이상수준에서 실험군이 많았다.

노인들이 평가한 조기경험중 실험군에서 보면 부정적인 가족관계인 1)부모간의 불화 2)부자간 불화 3)모자간 불화 4)가족중 과음주자등의 항목과 거부적 부모태도인 부모의 무관심 16)원치않은 출생 17)주워왔다는 거부적인 태도 및 19)죽으라는 위협등의 전 항목은 유의한 경험 이었다. 또 과잉간섭적 부모태도 중에는 13)엄한 부모와 23)집안일 시키기 항목과 경제적 문제 중에는 6)식생활의 곤란 항목, 사별중에는 10)어머니와의 사별항목 그리고 성적이거나 그외 요인중에는 24)마귀나 도깨비의 위협이 유의한 항목이었다.

특히 어머니와 사별하였거나 불화가 있을 경우와 식생활의 곤란과 더불어 가족중의 알콜중독자가 있을때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거나 무관심한 부모의 태도(3,4,6,10,15,16번 항목)등이 더욱 의미있는 내용이었다. 이런점은 현 60대이상의 노인들이 1920년대 전후에 10대로 생활했던 시대배경을 참조해 봐야 할 것이며

추후 현재 청소년층이 기억하는 조기경험과 상호 비교해 본다면 흥미있는 과제로 될 것이라 본다.

세째, PTES로 양군을 평가하여 유의한 의미를 보인 정신사회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남녀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및 성장지에 따른 성적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조기경험성적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불안과 우울이 심한 노인은 성별이나 연령별, 도시와 농촌 어디서 자라났던 시간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 유무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조기경험이 강함을 시사해준다.

교육정도는 실험군에서 무학이거나 국졸일때가 중졸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 무직일때와 생활정도가 중류이하일 때가 높았다 ($p<0.001$). 부모의 직업은 고득점군인 실험군에서 농업과 상업이 9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성적은 유의하게 높았다. 실험군의 노인중 교육정도가 낮고 직장이 없는 노인은 생활수준도 중류와 하류 수준으로 부모의 직업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런 상태는 조기경험이 부정적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라고 하겠다.

또한 실험군의 노인들이 평가한 조기경험의 상위항목은 13)엄한 부모 6)식생활 곤란 1)부모간의 불화 4)과음주자 및 2)부자간의 불화등으로 이들 항목은 이미 실험군에서 유의하다고 평가된 항목들이다.

형제자매수는 1명, 3명, 5명 및 7명을 홀수일 경우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이들 노인의 자녀수도 1명, 3명, 4명 및 5명 등 홀수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 다음이 첫번째와 네번째가 높았다. 이들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할 경우가 73.9%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불안한 노인은 형제수, 출생순위 및 자녀수와 조기기억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론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형제수가 많거나 첫째나 둘째로 태어났을때 정신적 부담

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면이나 노인자신은 그들의 자녀가 많아도 자녀와 동거할 때 정신적부담은 많이 받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들과 부정적조기 경험의 강도는 연결하기 어려운 점이다. 종교는 실험군에서 79.1 %가 무교거나 불교신자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p<0.001$).

해방이후 활동기 연령으로 한국사회에 살면서 종교가 없거나 전통적인 불교를 신봉하는 경우는 주변의 변화에 잘 반응하지 않는 성격의 일면이 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몇가지 점을 침작해 본다면 자녀와 동거하면서 불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노인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어린시절의 경험이 더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조기 경험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고도 추론할 수 있겠다.

요 약

1988년 대구시내 거주하는 노인 27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우울통합척도(CADS)와 조기 경험척도(PTES)로 평가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CADS로 평가한 성적이 49점이하는 대조군, 50점 이상은 실험군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양군의 성적은 대조군 40.15 ± 6.19 , 실험군이 57.75 ± 6.37 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평가한 불안우울 항목은 성욕감퇴(Decreased libido) 피로감(Fatigue) 정신적 혼란(Mental disintegration) 정신 운동지연(Psychomotor retardation) 및 이상감각과 전신통증(Paresthesia and Body-ache & pain)등이 있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다음과 같은 조기경험 항목이 유의하게 높은 의미를 보였다. 식생활곤란(Dietary life difficulty), 가족중 과음주자(Alcoholism among family members), 부모간의 불화(Disunion between husband and wife), 부자간의 불화(Trouble between mother and child-

ren), 모친상실(Early maternal loss), 부모의 무관심(Parent's indifference), 원치 않는 출생(Unwanted birth)등이었다($p<0.001$). 그리고, 거부적 부모태도 항목중 주워 온 자식이란 부모의 위협(Threat of parent's rejection),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위협(Threat of my parent desiring my early death), 부모의 과잉간섭, 심한징벌(Severe punishment by parent), 잡일 시키기 (Parent's demand of doing domestic chores) 및 기타 정신 사회적요인 항목중 도깨비나 귀신의 위협(Fear of devil or ghost)등이었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에서 조기경험성적이 유의하게 높은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별, 결혼 상태별 및 성장지별성적은 실험군에서 모두 높았다($p<0.001$). 노인자신이 무직, 중류 및 하류계층일 경우와 부모가 농업 및 상업일 경우 그리고 무종교나 불교일 경우에 조기경험성적이 높았다($p<0.001$). 형제자매가 많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노인자신이 자녀와 동거할 때 조기경험성적이 높았다($p<0.001$).

참 고 문 헌

1. Saul L. : Emotional maturity. 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1971.
2. Saul L. :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1st ed., New York, Science House, 1972.
3. Freud S. :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S.E.23, 1940.
4. Freud S. : Joseph Breuer. S.E. 19, P.280, 1925.
5. Freud S. : The interpretation of dream. S.E. 4, 1900.
6. Erikson E. H. :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 Norton, 1963.

7. Anderson J. E. editor : Psychological aspect of ag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D., 1956.
8. Butler RN, and Lewis MI : Aging and mental health—Positive psychosocial and biomedical approaches. 3rd ed., St. Louis, C V Mosby CO., 1982
9. Zung W.W.K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 Psychosomatics, 12 : 371—379, 1971.
10. Zung W.W.K :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12 : 63—70, 1965.
11. Hamilton M. : The assessment of anxiety states by rating.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32 : 50—55, 1959.
12. Hamilton M.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for Primary depressive ill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 278—296, 1967.
13. 이종범, 김창수, 박형배, 박병탁, 이중훈, 정성덕 : 신불안—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학술지, 4 : 2 : 29—38, 1987.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II-R).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 205—239, 1980.
15. McCubbin H. I. Olson D. H. Barnes H. Larsen A. Muxen M. and Wilson M : Family Inventories—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Minnesota, 1982.
16. Keeler M. H. Tayler C. I. and Miller W. C. : Are all recently detoxified alcoholics depressed. Am J Psychiatry, 136 : 586—588, 1979.
17. 정명숙, 김용식 : 정신분열증 환자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 1 : 84—93, 1981.
18. 정성덕 :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2 : 2 : 265—274, 1983.
19. 박병탁, 이종범, 정성덕, 정종학 : 불안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2 : 1 : 113—122, 1985.
20. 이종범, 박병탁, 정성덕 : 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2 : 1 : 123—133, 1985.
21. 박병탁, 이중훈, 정성덕 : 영남대학교 신입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불안 및 우울 평가. 학생연구,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7 : 1 : 43 : —60, 1986.
22. 이중훈, 박병탁, 윤옥, 정성덕 : 불안—우울에 의한 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학생연구,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8 : 1 : 3—19, 1987.
23. 이종범, 서혜수, 정성덕 : 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학술지, 3 : 1 : 151—161, 1986.
24. 박형배, 김진성, 김창수, 박병탁, 이종범, 이중훈, 정성덕 : 신불안—우울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학술지, 4 : 2 : 29—38, 1987.
25. 김창수,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백운학 : 대학생의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 : 1 : 23—40, 1989.
26. 이종범, 정성덕 :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 : 3 : 431—444, 1985.

—Abstract—

Effect of the Early Traumatic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Kwang Hun Lee, Jung Hoon Lee, Jong Bum Lee,
Byung Tak Park and Seung Do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psychic traumatic experience and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aged.

The authors carried out this study by means of the combined anxiety-depression scale(CADS) and the preadolescence traumatic experience scale(PTES) with 278 aged men and women residing in Taegu from September to October 198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Based on the scores evaluated by CADS, the scores of the both groups showed that comparative group was accounted for 40.15 ± 6.19 ,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for 57.75 ± 6.37 , which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the experimental group($p < 0.001$).
2.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arly experience score than the comparative group in the dietary difficulty, alcoholism among family members, disunion between husband and wife, trouble between mother and children, early mother loss, parent's indifference and unwanted birth($p < 0.001$).
3.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early experience score than the comparative group by sex, age, marital status and grown location($p < 0.001$).
4. When the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unemployed and in the middle or low classes and their parents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nd commercial business and believing in buddhism or non-religion, showed higher experience score($p < 0.001$).

Key Word : Early Traumatic Experience-Elderly